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DSME and MOL to forge deals for huge LNG floating storage units for Russian Arctic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의 Mitsui OSK Lines로부터 360,000CBM FSU 2+2척 수주가 유력하다고 보도됨. 해당선박은 북극해(Northern Sea Route)항로를 통한 러시아의 LNG수출을 위한 용도로 알려졌다며 LNG Storage 기준으로 사상 최대 사이즈라고 보도됨. (Tradewinds)

## 미국, Mozambique LNG 금융지원금 증액

미국 수출입은행이 Mozambique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보도됨. 이는 이 프로젝트에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보도됨. 당초 미국은 47억달러를 지원해줄기로 했으나 금융 지원 금액을 18억달러 증액한다고 발표함. (선박뉴스)

## Taiwan unveils \$1bn relief for major box carriers

대만 정부가 자국의 주요 컨테이너선사 지원을 위해 10억달러(300억대만달러)규모의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보도됨. 화요일 대만 정부는 Evergreen Marine과 Yang Ming Marine Transport 측과 논의를 통해 300억대만달러규모의 신용보증과 2.43억대만달러규모의 지원금(이자비용 관련)을 결정했다고 보도됨. (TradeWind)

## US LNG exports climbed in March

미국의 3월 LNG 수출 실적이 발표되었으며 수출물량이 전월대비 8.2% 증가했다고 보도됨. 3월 수출 물량은 2,441억CBM으로 전년동기대비 86.7% 증가했다고 보도됨. 그러나 해당 실적은 2개월 지연되어 발표된 3월 수출 데이터이며 COVID-19에 따른 시장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도됨. (Upstream)

## 광양선박 매물로

중견 물류업체 동방이 자회사 광양선박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됨. 현재 지분 매각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와 협상 중이며, 매각 대상인 동방의 보유 지분 전량(76.16%)의 거래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라고 보도됨. 광양선박은 벌크선사로 포스코가 주 거래기업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 Most workers pulled from Russia LNG project on Covid-19 threat

COVID-19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러시아 건설업체 Velesstroy가 Yamal Peninsula 지역에 위치한 Sabetta 마을의 직원들을 대부분 대피시켰다고 보도됨. 이번 주 마을에 남아있던 207명의 직원들을 대피시켰고 LNG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겼다고 보도됨. (Upstream)